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2부5강 육조해 서문 번역 (3)

자기 안의 불성만 믿고 안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불성을 삶에서 개화시키는 노력이 시시각각 있어야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왜 금강에 비유했는가

12. '여러가 굳이 금강(金剛)에 빗댄 것은 다만, 세인(世人)들의 성(性)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으로 경전을 외면 안으로 행해야 광명이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안으로 견고하지 않으면 정혜(定慧)가 망(亡)하고, 입으로 외고 마음으로 행해야 정혜가 함께 밝아진다. 이것을 공극(究竟)이라 한다.' (如來所說金剛喻者, 祇為世人性無堅固, 口誦誦經, 光明不生, 外誦內行, 光明齊等, 內無堅固, 定慧即亡, 口誦心行, 定慧均等, 是名究竟.)

- 불성이 원래 견고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견고해 지려고 금강을 말했다고? 금강 불성은 그림, "금강처럼 불성을 단련시키라"는 소리가 되는데...

13. "금이 산중에 있어도 산은 이것이 보물인 줄 모른다. 보물도 이게 산인 줄 모른다.

다. 왜냐. 지각(性)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지각(性)이 있어, 그 보물을 쓸 줄 안다. 금의 전문가를 구해, 산을 뚫고 깨서 원광을 제련하는데, 그렇게 얻은 순금을 처분하여 빈고(貧苦)를 면한다. 사대신(四大身) 중에 있는 불성 또한 그러하다. 사람의 몸(身)은 세계(世界)에 해당하고, 인아(人我)는 산(山)에 해당하며, 번뇌는 광석에, 불성은 금에, 지혜는 제련사(師)에, 정진(精進)은 (그 광석을) 뚫고 깨는 일에 비유된다... 몸의 세계(身世界) 가운데 인아의 산(人我山)이 있고, 인아의 산 가운데 번뇌의 광석이 있다. 번뇌의 광석 가운데 불성의 보물이 있고, 불성의 보물 가운데 지혜의 제련사가 있다. 지혜라는 제련사를 써서 인아의 산을 깨고 뚫어, 거기서 번뇌 광석을 보는데, 그것을 깨달음의 불로 불태고 녹이면, 거기 금강 불성이 분명히 명징(明淨)하게 있는 것을 본다. 금강의 비유를 든 취지가 여기 있고, 그래서 경의 이름도 그렇게 지게 되었다." (金在山中, 山不知是寶, 寶亦不知是山, 何以故, 為無性故. 人則有性, 取其寶用, 得遇金師, 斬鑿山破, 取煉煉鍊, 遂成精金, 隨意使用, 得免貧苦. 四大身中佛性亦爾, 身喻世

界, 人我喻山, 煩惱喻礦, 佛性喻金, 智慧喻工匠, 精進勇猛喻斬鑿, 身世界中有我山, 人我山中有煩惱礦, 煩惱礦中有佛性寶, 佛性寶中有智慧工匠, 用智慧工匠, 鑿破人我山, 見煩惱礦, 以覺悟火煉煉, 見自金剛佛性了然明淨, 是故以金剛為喻, 因為之名也.) - 제 1부의 6, 7, 8강에 걸쳐 이 비유를 짚어본 바 있다. 다시 거들며 보면 좋겠다. 연구원 근처에 들른 어느 웰빙 보리밥집의 액자에 이런 시구가 적혀 있었다. "인아산(人我山) 붕괴(崩) 무위도자고(無爲道自高) 범유하심자(凡有下心者) 수복자귀의(壽福自歸依)." 무슨 뜻일까. "인아의 산이 무너지는 곳에, 무위의 도가 짙어 높아간다. 어디든 하심(下心)하는 바로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짙어 몰려든다." 자기 속의 본연도 그렇고 사람 사이의 갈등도 자연과 실제(實際)를 수긍하고 존중하지 않는 저항에서 생긴다. 그 싸움으로 이곳저곳에 온통 피가 낭자하다. 도덕이나 제율도, 정찬이나 비난처럼 그런 인아산(人我山)의 금어(金語) 부스럼 가운데 하나이기 쉬우니,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함장.

人我山崩處(인아산붕처) 無爲道自高(무위도자고)

365. (그렇지만) 헛 이해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이름만 있고 실질이 없다. 취지를 이해하고 행동을 뒤야야 명(名)과 체(體)가 구비된다. 뒤지 않으면 범부요, 뒤으면 성지(聖智)와 같다. 그래서 금강(金剛)이라 이름지었다." (空解不行, 有名無體, 解義修行, 名體俱備, 不修即凡夫, 修即同聖智, 故名金剛也.)

-이 설명은 덧붙일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般若라 했는가

15. "반야는 범어이다. 지금 우리말로는 지혜라 한다.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지(智)이고, 방편을 발휘하는 것을 혜(慧)라고 한다. 혜는 지의 체(體)이고, 혜는 지의 용(用)이다. 체(體)에 혜(慧)가 있다면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무엇을 바라밀이라 하는가

16. "바라밀은 지금 우리말(唐言)로는 도피안(到彼岸)이라 한다. 도피안이란 '생멸을 떠난다'는 뜻이다. 다만 세인들의 성(性)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법(一切法) 상(上)에 생멸상(生滅相)이 있어, 제취(諸趣)에 유랑(流浪)하여 진여(眞如)의 땅에 이르러 못한다. 이 상태가 차안(此岸)이니, 일체

없다." (何名波羅密, 唐言到彼岸. 到彼岸者, 離生滅義, 祇緣世人性無堅固, 於一切法上, 有生滅相, 流浪諸趣, 未到眞如之地, 並是此岸. 要具大智慧於一切法, 圓離生滅即到彼岸, 亦云心迷則此岸, 心悟則彼岸. 心邪則此岸, 心正則彼岸. 口說心行即法身, 有波羅密, 口說心不行即無波羅密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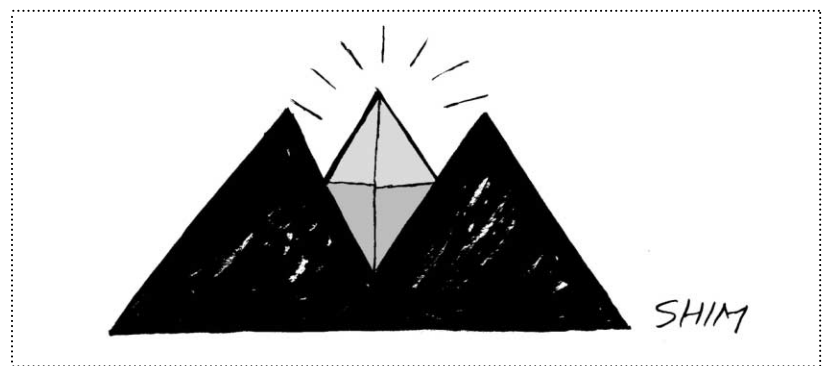
- 육조는 이 언덕과 저 언덕을 어디 저편으로 읽지 않고, 쉽게 말하자면 마음의 '태도'로 읽었다! 피안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다. 해능은 고위관리를 비롯한 청중들에게 "서방정토가 지금 여기 있으니, 어디 한번 보여주라"하고 은근 유머를 섞어 깨우쳤다.

무엇을 일러 經이라 하는가

17. "경(經)이란 길(徑)을 뜻한다. 성불(成佛) 가는 통로라는 뜻에서 그렇게 불렀다. 이 길을 걷자면, 마땅히 안으로 반야행(般若行)을 뒤야 구경(究竟)에 이르러야 한다. 만일, 외고 설하기만 하고, 마음이 이에 의거하여 행하지 않으면 자심(自心)에 경(經)이 없어진다. 실견(實見)하고 실행(實行)해안(安) 자심에 경(經)이 있다! 여래(如來)가 이 경을 금강반야바라밀(金剛般若波羅密)이라고 부른 뜻이 바로 여기 있다." (何名為經, 經者徑也, 是成佛之道路. 凡人欲離斯路, 應內修般若行, 以究竟如, 如或但能誦說, 心不依行, 自心即無經, 實見實行, 自心即有經, 故此經, 如來號為金剛般若波羅密也.)

- 누구나 한 권의 <금강경>을 갖고 있다. 글자로 씌이지 않은 그 경전을 수지독송(受持讀誦)해 나가는 법을 배우자. (我有一卷經, 不經紙墨成, 展開無一字, 常放光明.)

한국학중앙연구원



지를 운용하여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체에 만일 혜(慧)가 없다면, 어리석음에 빠져 지를 운용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 이 어리석음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何名般若, 是梵語, 唐言智慧. 智者不起愚心, 慧者有其方便, 慧是智體, 智是慧用, 體若有慧用, 智不愚, 體若無慧用, 愚無智, 祇緣愚癡未悟, 遂假智慧除之也.)

법에 대 지혜를 갖추어 생멸을 완전히 떠나면 이것이 도피안이다. 또 이렇게도 말한다. '마음이 해매면 차안이고, 마음이 깨달으면 피안. 마음이 사되면 차안이고, 마음이 바르면 피안'이라고... 구설심행(口說心行), 입으로 말하고 동시에 마음으로 행하면 즉 자법신(自法身), 즉 자신이 곧 법신이 바라밀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입으로는 외되, 마음이 행치 않으면 거기 바라밀은

주장사파라...

이발사 출신 우바리존자



조태호



우바리존자(?-?): 석가모니 십대제자 중 한 사람, 석가족 궁정의 이발사 출신으로 교단계열에 통합하고 계율을 잘 지켜 지계제일로 꼽힘.

네티즌 교리문답

시주와 보시는 같은 의미인가요?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 시주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시를 하러 간다고도 합니다. 그럼 시주와 보시가 다른 것이지요?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영학생)

답1: 시주나 보시는 같은 의미입니다. 재물· 불필요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온화한 행동· 환한 얼굴도 보시며 시주할 수 있습니다.

시주(施主)란 본래 보시(布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근래에 와전되면서 '시주' 자체로서 '보시하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시주는 보시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보시는 '준다' '배운다'는 뜻으로 육바라밀(六波羅蜜)의 첫 번째입니다. 보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보시가 재물보시(財布施)· 무위보시(無畏布施)· 법보시(法布施)의 3가지 보시입니다. (보시원)

답2: 맞습니다. 시주는 보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앞서 보시원님의 말씀처럼, 보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재보시란 말 그대로 재물을 주는 보시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입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불우이웃돕기가 많아서 재보시는 비교적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보시를 할 경우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시여야 재를 살리는 보시가 됩니다. 물건을 주고 반대로 돌아올 것을 꾀할 경우 그것은 거래이므로 보시가 되지 않습니다.

무위보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남의 두려움을 불법에 의해 제거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나의 수행이 올바름으로 인해서 남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위보시는 흔히 무재보시(無財布施)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재물 없이 보시한다는 뜻인데 남과 만나서 행하는 유순한 인사와 온화한 행동, 환한 얼굴, 편안한 웃음 등이 무재보시에 속합니다.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보시 중에는 법보시가 '최고의 보시'라고 하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어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힘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의 의욕을 상실했거나, 생을 염세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법을 줌으로써 새롭게 탄생시키는 보시는 생명을 구제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상황이 안 좋은 요즘 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보시의 정신을 실천해 어려운 사회분위기를 일신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법보시)

부타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4 in specific cells.

상식퍼즐

1. 대승의 교법을 담고 있는 경전 2. 사법고시 외무고시 3.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조계종 중앙역경원 초대원장을 역임한 4이제까지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 5. 월봉· 평행봉 등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모든 운동 6. 먹을 가는데 쓰는 문방구 7.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

1. 정토 3부경 중에서 가장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무량수경 2권을 가리킴 8. 좌선 수행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해서 걷는 것을 칭하는 말 9. 시기에 늦었음을 한탄한다는 뜻의 한자성어 10. 사단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11. 마음에 거리낌 없이 솔직함 12. 빛의 굴절로 인해 영동한 곳에 가상의 물체가 보이는 현상 13. 비행기의 몸통부분 14. 속국이 중주국에게 때마다 예물을 바치던 일.